

이재명, ‘무죄’로 리더십 붕괴 막았다

‘선거법 유죄’ 수세 극복...정치적 반등 모색
내부 결속 다지며 ‘먹사니즘’ 기조 유지할 듯
관련 재판 총 5개...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옛 성남시장 당시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리더십 붕괴를 막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 간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10일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은 ‘발등의 불’이었던

리더십 붕괴를 일단 막고 정치적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재명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상급심에서 감형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오늘 재판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됐다면 2연속 유죄 판결에 이 대표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리더십마저 위태로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욱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던 이번 재판



기뻐하는 지지자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민주당도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당장 이 대표는 정치적 현안에 최대

한 언급을 자제한 채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잠시 흔들리는 듯 했던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내부 결속도 다질 태세다.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위태로워 보였던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압박했던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정치보복’,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찰개혁 법안 추진, 김사탄핵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리더십 위기 상황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원 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5개로 늘어나 그의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김진수기자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는?

장성 출신...사법연수원 30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인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람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김 판사는 장성 출신으로 서울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법관 생활 내내 재판부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 온 ‘배테랑’이다. 출신은 전남이지만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으며 법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관련한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키맨’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위증교사 1심을 비롯해서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韓 “당원게시판 대통령 비판글 색출, 황당한 소리”

“가족 명의 게시글, 도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

가족 작성 여부 언급 안해...“요구 응하면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히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익명 당원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연 공간이고, 거기에서 당연히 대통령이란 당 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한 대표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동명 이인’이 작성했다고 한 대표 측이 확인했지만, 가족 명의 글에 대해서 한 대표 가족의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친윤(윤석열)계는 가족의

작성 여부를 밝히라고 한 대표를 압박해왔다. 한 대표는 “제 가족 명의로 된 글도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전수조사했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의 사실 같은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이라고 (작성자를) 색출하라? 저는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익명게시판의 운영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가족의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려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당원게시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군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건에 언급됐던 사람들”이라며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이슈를 어떻게든 키워 ‘임집’(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겠다는 논란)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든 당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선고가 나오고 조금 숭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 이제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에 언급을 자제하다 작심 발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역지로 논란을 키우는 세력을 돕지 않기 위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런 것을 악용해 어떻게든 없는 분란을 만들려는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당이 쿠폰점프로 가냐 마냐 하는 골든타임에 (이 논란이) 언론을 뒤덮을 일인가”라며 “저 정도 (비판) 글도 못 쓰나. 왕조시대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

의에서 한 대표 측을 겨냥해 ‘당이 한 대표 비판 글 작성자들을 고발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저를 비판했다고 고발할 리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에게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동원색적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 그게 해당 행위이고 공개적 모욕”이라며 “그렇지만 제가 법적 조치를 했다”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민주 “尹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보관해야”

“함부로 폐기시 증거 인멸로 구속 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대통령 부부가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기존 휴대전화 가 폐기해서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면 기존 휴대전화를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기존 휴대전화를 자신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며 “함부로 폐기 처리했다가는 증거인멸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진수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 (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 (실내스크린골프 20개 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신회관 방향)